

연체율 오르는데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 금융권 '딜레마'

금융위, 은행 공공성 확대 간담회
생산적 금융 규모·속도 확대 유도
중소 연체율 전년비 0.14%p 상승
은행, 기업 평가시스템 개발 나서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신사업 기업을 지원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 공공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6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금융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은행의 공공성 확대를 주제로 공식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서는 은행권의 생산적·포용 금융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같은 주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뉴스1

올해 상반기 중 한 차례 더 은행권을 소집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이 일시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고 규모와 추진 속도를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은행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은행권은 최근 중소기업에 중심으로 부실대출이 늘어나 건전성 지표에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12월 기준 0.59%로 집

계됐다. 대기업은 0.12%이지만, 중소기업은 0.72%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1년 전보다 0.14%포인트(p)오른 0.78%, 개인사업자 같은 기간 0.03%p 오른 0.63%를 기록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도 꾸준히 줄어 들고 있다. 지난해 은행 전체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 비중은 79.8%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80% 선이 붕괴됐다. 중소기업 대출 부실 부담이 커지면서 은행

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이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기업들의 성장성을 평가할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신한금융은 현재 금융권의 일반적 신용평가 방식으로는 재무실적 등 과거 성과 중심의 안정성 평가를 중심으로 설계돼 기술 기반 기업이나 신(新)산업 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 성장성 신용평가' 개발을 추진 중이다.

재무·거래 정보 중심의 기존 데이터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 단계, 전통 금융 정보와 대안정보 등을 함께 활용해 사업성·시장 성장성·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재무 중심의 평가 방식만으로는 혁신 기업의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은행들도 성장 가능성을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심사 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metro



GS건설 직원이 AI LAB을 활용하고 있다. /GS건설

GS건설 자체개발 'AI랩' 도입 본격적 업무혁신 나서

GS건설이 자체AI를 개발하고 업무 혁신 본격화에 나선다.

GS건설은 회사가 소유한 GPU를 활용한 자체AI랩인 'AI랩(LAB)' 개발에 성공해 오픈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자체 개발해 오픈한 AI랩이 기존 AI 툴과 달리 회사가 소유한 사내 GPU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기술유출 등의 보안 걱정 없이 사내에서 자유롭게 공유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자체 보유한 GPU를 활용함으로써 직원들이 활용하면 할수록 자체 GPU에 AI를 활용한 정보들이 축적돼 기술 내재화를 이루는 효과가 있다.

사내에서 AI를 활용한 사례들이 대부분 문서를 활용한 점에 착안, 사내 지적 재산권이 있는 도면 같은 자료들도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단순화해 직원들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였다.

GS건설은 이번에 개발한 AI랩과 기존에 사용중인 외부 AI툴을 업무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AI 전략을 통해 전 직원이 AI를 자유롭게 업무에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AI를 활용해 실제 업무 혁신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성미 기자

카카오뱅크 '한달적금' 누적계좌 1400만 돌파

카카오뱅크의 '한달적금'이 출시 2년 5개월 만에 누적 계좌 개설 수 1400만 좌를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카카오뱅크가 지난 2023년 10월 출시한 '한달적금'은 100원부터 3만원까지 매일 소액을 저축하며 재미있게 돈을 모으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된 단기 적금 상품이다.

31일이라는 짧은 만기로 끝까지 적금을 유지하기 쉽고, 납입할 때마다 '춘식이' 캐릭터가 31층 건물을 한 층씩 오르는 시각적 즐거움을 더해 고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인기로 힘입어 '한달적금'은 출시 약 7개월 만에 500만 좌, 1년 5개월 만에 1000만 좌를 달성했으며, 이달 초 1400만 좌를 넘어서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저변도 확대됐다. 출시 초기에는 30대 이하 젊은 층의 비중이 높았으나, 현재는 40대(31%)와 50대 이상(32%) 고객이 전체의 63%를 차지하며 중장년층까지 아우르는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성별로는 여성 고객이 72%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나유리 기자

삼성·국민 현금배당 '유지'... 하나·우리는 '확대'

카드사 7곳 배당정책 양극화
신한, 총액 2385억 16.6% 줄어
롯데, 배당액 387억 절반 수준
현대, 배당성향 30%로 급감소

카드사 주주 배당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실적 둔화로 배당을 축소하며 보수적인 기조를 보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실적 둔화에도 배당 확대에 나선 곳도 있다.

10일 각 사 공시자료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 가운데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가 현금배당을 축소했다.

먼저, 신한카드는 현금배당 총액(2025 회계연도 결산 기준)을 2385억

원으로 확정했다. 전년(2861억원)보다 16.6% 줄어든 규모다. 단, 배당성향은 50%를 유지했다. 이익이 줄었다는 의미다. 신한카드의 지난해 순이익은 4767억원으로 전년(5721억원) 대비 16.7% 감소했다.

롯데카드도 배당금을 축소했다. 롯데카드는 총 배당액을 236억원으로 책정했다. 전년(387억원) 보다 약 절반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단, 배당성향은 지난 2023년도 20.80%, 2024년도 28.60%, 2025년 29.0%다. 롯데카드 역시 순이익이 2024년 1353억원에서 814억원으로 약 40% 가량 감소했다.

손익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배당을 줄인 곳도 있다. 현대카드는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배당금을 줄였다. 현대

카드는 지난해 전년 대비 10.7% 증가한 3503억원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1061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년(1544억원)보다 약 500억원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이에 따라 배당성향이 48.8%에서 30.0%로 자연스레 쪼그라들었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 비율을 뜻한다.

한편, 실적 부진에도 배당을 유지하거나 확대한 곳도 있다. 삼성카드의 경우 현금배당 총액을 2988억원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순이익은 6425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순이익이 33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0% 줄어든 있음에도 2년만에 2000억 규모의 배당

을 재개한다. 자본 지표 및 연체율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다. 배당성향은 60.6%로 카드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나카드와 우리카드도 배당금을 확대했다. 하나카드는 배당금을 30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우리카드는 294억원에서 299억원으로 확대했다.

카드사마다 배당 정책이 다른 것은 건전성 지표와 자본 여건이 다르고, 이익을 내부에 유보해야 할 필요성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배당정책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배당 규모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신규 투자 계획 여부에 따라 배당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KB국민은행, 취업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내달 27일 코엑스 A홀서 개최

KB국민은행은 오는 20일까지 '2026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는 'KB국민희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오는 4월 27일 서울 코엑스 A홀에서 개최된다. KB금융그룹이 추천하는 우수기업과 대기업 협력사, 코스닥 상장사,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등이 참여해 구직자에게 다양한 채용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1년 출범한 KB굿잡 취업박람회



는 누적 방문객 수가 125만 명에 이르는 단일 규모 국내 최대의 취업박람회다. 지난해까지 총 28회 개최됐으며, 약 6200여개 기업이 참가해 10만 5000여 건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4만 5000여 명의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연결하며 구직자와 기업을 잇는 국내 대표 취업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KB굿잡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성미 기자 smahn1@

기업은행, 국민성장펀드 1조3500억 지원

올해 투자 8500억, 인프라 5000억 공급

IBK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 10조 원 참여 계획의 일환으로 2026년 첨단 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에 1조 35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승인해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총 1조 3500억원 중 기업투자 부문 8500억원, 인프라 부문 5000억원을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에 공급한다.

기업투자 부문에서는 은행권 최대 규모 수준인 8500억원을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모험자본으로 공급해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 중소·벤처기업에는 모펀드 운

용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운용사를 통해 투자하고 스케일업·성숙기 기업에는 기업의 재도약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운용사를 자체적으로 선별해 맞춤형 투자를 진행한다.

또한 전력, 수소, AI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국가 전략 산업 관련 인프라에 5000억원을 투자해 첨단전략산업 인프라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첨단전략산업 기업 및 인프라에 대한 금융지원은 기업은행의 본연의 역할이자 강점 분야"라며 "기업은행이 발굴한 우량 사업을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추천해 펀드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